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 심사보고

의안 번호	208
----------	-----

I. 안건명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

II. 심사경과

의안 번호	제출일자	회부일자	상 정 내 역 (상정일자)	심사결과
208	2022.8.29.	2022.9.2.	제314회 임시회 제3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2022.9.22.)	원안동의

III. 제안설명 요지(조남준 도시계획국장)

1. 제안이유

- 가. 5년마다 도시기본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 나.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대체하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 마련

2. 주요내용

- 가. 2040 서울의 미래상
- 나. 6대 공간계획
- 다.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계획
- 라. 부문별 전략계획

마. 권역별 계획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IV. 검토보고 요지(조성준 수석전문위원)

“개 요”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수립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임
- 도시기본계획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붙임1) 서울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자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며¹⁾, 5년마다 재정비토록 되어 있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이하, 2040 계획안)은 지난 ’14년에 수립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이하, 2030 계획)을 재검토하

1) 국토교통부의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에 따르면, 도시기본계획의 의의는 국토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를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도시가 공간적으로 발전하여야 할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며,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해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에 있어 환경, 경제, 사회적 측면의 세 가지 영향을 통합적이고 균형 있게 고려하여야 하며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이해관계를 공간적 차원에서 종합,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고 명시됨

여 이를 대체하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번 의견청취안은 서울의 미래상²⁾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목표, 부문별 전략계획, 공간계획 및 이와 연계된 토지이용의 원칙과 방향 제시하고 있으며, 생활권 단위의 발전 방향 등 공간계획의 형태로 구체화함



- 2040 계획안은 당초 '19년에 착수되어 시민계획단(120인)을 구성하고 서울의 미래상과 주요 과제를 도출한 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계획안을 작성('20.6.)하였으나,

2) 사회 여건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과, 시민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도시·건축·환경·교통 등 100명 여명의 전문가 논의과정을 거쳐 수립

코로나19 발생과 새로운 시정 출범 등 변화된 여건을 고려³⁾하여
 계획안을 수정한 후 '22년 3월 계획안을 발표하고 6월 공청회를
 실시함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2019~2022)

구분	시민참여	공공 참여	계획안 작성
2019. 3월			재정비 착수
5월	사전기획, 자료구성		기초조사 및 자료 수집
8월	시민계획 설문조사	자치구 의견수렴	수립추진위원회 발족
10월	단 운영 (1·2차) (1·2차)		
11월			계획과제 도출
2020. 3월		자치구 의견수렴	공간계획 도출
6월			
11월		계획 수립 잠정 중단	
4월		서울시 새 시정 출범	
2021. 5월			계획안 수정 작업 추진
12월			
2022. 1월	미래상 및 발전 방향 설문조사		의견수렴 & 계획안 수정
2월	미래상 확정		
3월	대외발표(미래상·6대 공간계획 확정)		
4월		실·본부·국 및 자치구 의견수렴	
5월			
6월	공청회 실시		
7월			

3)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서울의 미래상과 발전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22.1.) 새로운 여건 변화에 대한 시민 의견 및 계획의 핵심 가치에 대한 재검토 실행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추진체계



“계획의 주요 내용”

- 이번 의견청취안은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을 기본방향으로, 보행 일상권 조성, 수변 중심 공간 재편, 중심지 기능 혁신, 도시계획 대전환, 기반시설 입체화, 미래교통 인프라 등 6대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공간계획 등을 제시함
- 보행 일상권 조성
 - 보행 일상권은 도보 30분 범위 내 주거·업무·교육·쇼핑·여가 기능이 복합된 공간으로서, 주거 용도 위주의 일상공간을 다양한 용도·기능을 갖춘 자립적 생활권으로 개편함



○ 도시계획 대전환

- 주거·상업·공업·녹지 지역으로 구분하여 밀도와 용도를 규제하는 용도지역제에 자율성·유연성을 부여하여 복합적 기능 배치가 가능토록 도시계획체계를 전환⁴⁾하고, 도시경관 관리에 일률적 높이 규제가 아닌 대상지 여건 등을 감안할 수 있는 정성적 계획으로 변경함(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높이 기준 삭제, 위원회 심의로 높이계획 결정)

○ 중심지 기능 혁신

- 2030 계획의 중심지 체계를 유지하되, 가용공간부족·계획규제 등으로 성장이 둔화된 3도심을(서울도심·여의도·강남) 규제 완화, 입체복합개발 등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4) 용도지역제는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서울시는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임

4대 신성장 혁신축(청년첨단 혁신축(동북권), 감성문화 혁신축(서북권), 국제경제 혁신축(서남권), 미래융합 혁신축(동남권))을 구축하여 이를 중심으로 중심지체계와 주변 산업자원을 연계함으로써 주거·상업·여가 등과 산업이 융복합된 도시 기능의 고도화를 도모함



○ 수변 중심 공간 재편

- 한강 본류를 중심으로 수변공간 활성화를 도모했던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07~'11)에 이어, 한강 본류 뿐 아니라 지천·소하천까지 접근성 및 장소성을 높이고 배후주거지와 연계하여 수변과 도시공간이 일체화된 수변도시를 도모함

서울 하천현황(법정)

하천법 (개소 / 연장)	한강	1 / 40km
	권역하천	4 / 55km
	지류하천	38 / 159km
소하천정비법		소하천 18 / 22km



○ 기반시설 입체화

- 장기적·단계적으로 지상철도 지하화 또는 지상데크 설치 등을 통한 입체복합개발을 추진하여 도시환경 개선 및 새로운 가용지 확보, 지역 간 연결성을 도모함



○ 미래교통 인프라

-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환경과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의 기반, 모빌리티 허브(미래교통수단과 GTX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연계하는 복합환승센터)와 3차원 신물류네트워크⁵⁾ 등 새로운 미래교통 인프라를 구축함



5) 드론 배송(공중), 자율형 물류로봇 배송(지상), 지하철 활용 배송체계(지하) 등과 같이 공중-지상-지하 활용

“계획의 특징과 평가”

- 이번 의견청취안은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 제고를 기본방향으로 도시공간·토지이용·도시관리 등 공간계획을 강화하여, 소통·배려·참여의 비교적 정책 가치에 중점을 둔 2030 계획(붙임2)에 비해 정책의 물리적 구현을 보다 강조한 것으로 파악됨
- 또한, 일률적이고 경직된 규제보다는 계획 재량을 높여 자율성·유연성을 부여함으로써 도시계획의 시대 여건과 시장 대응, 지역 맞춤형 등을 강화하고자 함
- 특히, 보행 일상권, 용도지역제 유연화(도시계획 대전환), 도시 기능의 고도화(중심지 기능 혁신), 기반시설 입체화 등 토지이용의 유연성·복합성·입체성에 주력하고 있는데,

개발 가용지가 부족하고, 디지털시대·비대면문화 등으로 주거·업무 등 공간 경계가 희석되는 대신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기능 충족 수요가 증가하며, 융복합시대 새로운 용도 급증과 용도의 명확한 구분이 점점 어려워지는 여건에서, 토지이용의 경직성 탈피는 시대적 공간 수요 반영과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에 바람직하다고 보임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국토계획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용도지역 재편 등에 대해 서울시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대외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정리하면, 이번 의견청취안은 ‘경직성에서 유연성으로 전환’과 ‘토지이용 효율성·활용도 제고’로 특징지을 수 있고, 가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서울시에서 다양한 시설 수요를 충족시키고 주거·상업·업무·교육·여가의 도시기능의 촘촘한 운영을 도모하는데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다만, 지구온난화가 심화되면서 자연재해, 감염병 등 시민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고, 지구온난화에 대응하여 국제사회에서 지구 평균기온 상승 억제를 위한 협정이 체결되어⁶⁾ 우리나라도 ‘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추진⁷⁾하고 있는 등 전세계적 기후변화대응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의견청취안에는 이와 관련된 사항의 비중과 구체성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됨

도시에서 70%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 등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변화대응은 서울시의 중장기적 주요 의제로서,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도시방재 계획을 비롯해,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의 약 70%(68.8%, '18년)를 차지하는 건물부문과 약 19%(19.2%, '18년)를 차지하는 교통부문 각각의 탄소저감 계획이 보다 구체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더불어, 방재-건물-교통-토지이용-공간계획의 연계성 제고 등 기

6) 파리협정(2015) :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2℃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2050년까지 CO2 순배출 제로를 달성해야 한다는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유럽연합 등 세계 136개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함

7)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발표('20.12. 환경부)

후변화대응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종합적이고 도시계획적인 접근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마지막으로 공청회('22.6.24.)에서 제시된 전문가·시민의 주요 의견은 붙임자료로 같음함(붙임3)⁸⁾

V.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VI. 토론요지 : 없음

VII. 심사결과 : 원안 동의

VIII.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후환경대응과 공간계획의 연계, 생활SOC 적극적 투자, 시민 복지의 가시적 계획, 도시의 다양성 등이 전문가·시민의 주요 의견으로 제시됨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

의안 번호	208
----------	-----

제출년월일 : 2022년 8월 29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입안이유

- 가. 5년마다 도시기본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 나.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대체하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 마련

2. 주요내용

- 가. 2040 서울의 미래상
- 나. 6대 공간계획
- 다.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계획
- 라. 부문별 전략계획
- 마. 권역별 계획 등

3. 추진경위

-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기 타

※ 작성자 : 도시계획과 종합계획팀 장영준 (☎ 2133-8323)